

평 화 선 언

이곳 오키나와는 과거 세계대전에서 일반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사상 초유의 격렬한 지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철의 폭풍은 20 만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귀중한 문화유산과 풍요로운 녹색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 뒤로 77 년째가 되는 6 월 23 일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부조리와 잔혹함을 몸소 경험한 오키나와현민은 각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굳센 신념을 통해 전후의 폐허와 혼란에서 힘겹게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올해, 오키나와현은 본토 복귀 5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복귀 전 해인 1971 년, 당시의 류큐 정부가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한 복귀 조치에 관한 건의서에는, “군사 기지가 없는 평화로운 섬”으로서 복귀하는 것을 강하게 바랐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국토 면적의 약 0.6%만을 차지하는 오키나와에 일본 전체 미군 전용시설면적의 70.3%가 집중되어 있어,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 항공기 소음, 수질 및 토양 오염 등, 현민은 과중한 기지 부담을 오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현은 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보다 정리, 축소하고 일미지위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사건 사고 등 기지 부담을 경감, 후텐마 비행장의 운용을 빠른 시일 내로 정지할 것을 포함해 하루라도 빨리 위험성을 제거, 헤노코 신기지 건설 포기 등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평화롭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오키나와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짊어질 자식과 손자들에게 귀중한 자연환경과 오키나와 고유의 문화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전히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난민, 빈곤, 기아, 차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린당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는 무고한 시민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자연환경이 차례차례 파괴되고 평온한 일상을 빼앗겨 공포라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은 77 년 전 오키나와의 주민들이 휘말렸던 지상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민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멈추길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피난민을 수용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평화가 회복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유네스코 헌장의 전문의 내용입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다양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며, 대립과 분단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를 거듭해 함께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오키나와에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길러낸 관용의 마음과 만국 진량의 정신으로 많은 나라들과

교류해 평화를 유지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해 온 오키나와는 세계의 항구 평화를 바라며, 국적이나 군인, 민간인의 구별 없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돌아가신 모든 사람의 성명을 새긴 <평화의 초석>을 세웠습니다.

올해에도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총 24 만 1,686 명의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에 담긴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오키나와의 정신 치무구쿠루”를 국경을 넘어 세계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로 77 년이 지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비참했던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끔찍했던 전투의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기 위해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복귀 당시 현민의 바람을 계승해 복귀로부터 50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키나와 21 세기 비전을 통해 현민의 희망을 담아 그려낸 이상적인 오키나와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건의서>를 엮어냈습니다.

2022 년도부터 시작된 <신 오키나와 21 세기 비전 기본방침>을 토대로 현민이 바라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추라시마’ 오키나와”의 미래를 향해, 오키나와현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친절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키나와에서 세계로 평화의 목소리를 전달해, 두 번 다시 오키나와를 전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핵무기 폐기, 전쟁 포기, 항구 평화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命どう宝」んでい言う格言や、私達御先祖ぬ遺くちくいみそ一ちやる何事にん勝る黄金言葉やい(ゐ)びーぬ一ぐとうまいん。

くぬ命宝やる格言や、何時ぬ時代までいん継なじいちゃびらな。

誰一人やていん命奪らつていんならん、あんし奪い(ゐ)んさんぐとう御万人が心穏くそ一てい暮らさり一る安寧る世ぬ中んかい(ゐ)なさびらな。

子共達ぬ瞳が輝い(ゐ)かんてい、全ぬ方々が幸やんでい いゆる実感ぬない(ゐ)る希望ぬ満っち溢でい一る社会なしみてい 今世から未来までいん 築 ていいいちゃびらな。

Your lives matter

It is life, itself, that matters more than any treasure Nobody has the right to take another life

Nobody should be left behind or have to live with fear We will pass our faith of “Nuchi-du-takara” (命どう宝) on to the succeeding generations

So that we can create a society where our children’s eyes brightly with hopes, and all people are able to live in peace

Let’s work together to hand down our compassionate society that embodies the spirit of the Okinawan People

Let’s continue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 국적과 관계없이 희생되신 모든 영령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평화의 존귀함을 올바르게 다음 세대로 전하며 국제 평화 실현에 공헌하고 모든 현민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 실현을 목표로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여기서 결의하고 선언합니다.

2022 년 6 월 23 일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

※방언 및 영어 번역

“누치 두 타카라” 생명이야말로 보물임을 모든 시대에 전하는 것.

누구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을 빼앗지도 않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녕한 세상을 만드는 것.

아이들이 눈동자를 반짝이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사회를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쌓아 올리자.